



"병어리 차점을 맡았다"

뜻: 해야 할 말이 있거나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도, 두려움이나 답답함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속을 끓이는 상황을 말한다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담판 · 침묵 · 우유부단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얇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병 어 리] [차 점 을] [맡 았 다]

웹에서 보기

